

# 해양수산동향

**Vol. 1250**

2007. 11. 20

책 임 연구 원 유 미 림

TEL 2105-4954

E-mail mirim-u@kmi.re.kr

## ‘우산도는 독도’ 입증할 조선시대 사료 발굴

**01**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쟁점 중의 하나인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됐음

**02** 최근 우리 연구원이 조선 후기 인용복 사건 당시 생존했던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을 분석한 결과, 우산도는 울릉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섬인 것으로 밝혀졌음

**03**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토대로 우산도를 독도라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은 우산도에 대해 울릉도나 그 옆에 있는 죽서도를 치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음

**04** 그러나 박세당은 울릉도에서 날씨가 아주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 우산도가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산도가 죽서도나 관음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우리나라, 『세종실록』 등을 근거로 ‘우산도=독도’ 주장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간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우산도가 독도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옛 문헌을 근거로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와 다른 섬으로 보고, 이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해왔다.<sup>1)</sup>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우산국에 관한 기록과 함께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우산도’에 관한 기록을 그 근거로 제시해왔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울릉도와 우산도가 다른 섬이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석 등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주석 부문에 나와 있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본래 한 섬이라는 설도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우산도가 울릉도이거나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죽도(竹嶼島)<sup>2)</sup>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부인해왔다. 특히 일본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울릉도가 하나의 섬이라는 『고려사』 「지리지」의 주석을 답습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더구나 우산·무릉이 두 개 섬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두 서적의 한 구절만을 인용해 조선 초기부터 우산과 울릉 두 개 섬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sup>3)</sup>고 주장해왔다.

## 일본, 우산도=울릉도 또는 주변에 있는 섬으로 주장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울릉도 한 개 섬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고, 우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sup>4)</sup>고 주장하면서 우산도가 독도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산도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시각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시모조 마사오를 비롯한 일부 일본학자들은 우산도가 죽도(竹嶼島)이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 표시된 ‘석도’는 관음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발간한 보고서도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안용복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현재의 죽도(독도)가 아니다. 안용복이 본 것은지도



1) 『독도관계자료집』(1)-왕복외교문서(1952-76) (1977, 외무부)에 나오는 1953년 9월 9일부, 1954년 9월 25일부, 1959년 1월 7일부 ‘한국정부 견해’를 말함.

2)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죽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죽서도를 이와 같이 표기하였음.

3)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p. 105.

4) 앞의 책, p. 101.

상에 ‘이른바 우산도’가 된 죽도(竹嶼島)이다. 죽도(竹嶼島)는 안용복이 어로활동을 하고 있던 울릉도 저동의 동북쪽에 있고, 죽도(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에 나타난 섬=독도

일본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료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sup>5)</sup> 우리나라 사료에 나오는 ‘울릉도 우산도’ 관련 기록은 대체적으로 두 갈래다. 하나는 제목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구분하여 적은 경우, 또 하나는 ‘울릉도’와 ‘우산도’ 중 하나만을 적은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울릉도 우산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 ‘울릉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우산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우산도가 독도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선 후기에 작성된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과 박세당의 「울릉도」 관련 기록 전문을 번역·분석한 결과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울릉도 사적」<sup>6)</sup>은 안용복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694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릉도를 수토(搜討: 수색하여 토벌함)한 삼척 영장 장한상(張漢相, 1656~1724)<sup>7)</sup>이 쓴 기록이다. 당시 우리나라 조정은 일본이 울릉도를 점거하려 하자 장한상을 삼척 영장으로 임명하고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이때의 수토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 「울릉도 사적」이다. 이 사료는 1977년 울릉도·독도학술 조사사업 때 처음 발견돼 큰 관심을 끌었다. 장한상은 이 사료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자료와 함께 이 「울릉도 사적」에 나오는 ‘동남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독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울릉도 사적」에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술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장한상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강역)에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즉, 장한상은 “섬의 산봉우리에 올라 일본 강역(疆域)을 자세히 보고자 했으나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sup>8)</sup>고



5) 참고로 사료명과 제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음.

『삼국사기』, 『우산국』, 『세종실록』, 『于山·武陵』, 『고려사』, 『울릉도』, 『신증동국여지승람』, 『于山島·鬱陵島』, 『동국여지지』, 『우산도 울릉도』, 『춘관지』, 『울릉도 쟁계』, 『강계고』, 『울릉도』

6) 이 글은 총 15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박세당의 「울릉도」에는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음. 하나는 일본에 대한 방비책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군관과 장한상이 목격한 동굴 속의 형상에 관한 기록임.

7) 『조선왕조실록』과 『紀年便攷』에 의하면, 장한상은 현종 연간 경상좌수사와 회령부사를 지냈던 장시규의 아들로 1676년에 무과에 등과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음. 1682년에 훈련원 부정(副正)으로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간 적이 있음.

8) 『登島山峰 審望彼國之域 則杳茫無限杓之島 其遠近 未知幾許』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앞에서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라고 할 때의 ‘희미하게 보이는 섬’은 일본의 강역이 아니라 조선의 강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한상이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미 그 섬을 당연히 조선 영토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장한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일본 강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한상은 울릉도 정상에 올라 해상에서 일본의 섬이라 여겨질 만한 것을 찾으려 했으나 조선의 우산도(독도)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에 대해 일본 측은 ‘동남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독도인 근거로는 미약하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장한상과 동시대 인물인 서계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울릉도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조선 시대에 우산도(독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세당의 글은 2001년에 11대 후손이 장서각에 “서계 종택 고문서”를 기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대체적인 내용만 소개되어 있을 뿐<sup>9)</sup> 전문이 번역된 적이 없었으므로 ‘우산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적이 없었다.

### 박세당의 「울릉도(鬱陵島)」에 나타난 우산도에 관한 기술

박세당<sup>10)</sup>의 「울릉도」<sup>11)</sup>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한 부분, 둘째,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본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갔다가 돌아온 승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 셋째, 1694년 9월 2일 장한상이 군관의 보고를 토대로 비변사에 보고한 내용, 넷째, 같은 해인 1694년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한상이 수토한 상황을 비변사에 보고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네 번째 부분은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 실려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 박세당은 두 번째 부분, 앞에서 말한 승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는데, 여기에 우산도가 독도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기술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9) 김기혁·윤용출,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 124 참조.

10) 박세당은 17세기의 사상계를 풍미했던 석학이었으나 자유분방한 사유체계로 인해 당시 주자학을 신봉하던 노론학계에 의해 ‘사문 난적(斯文亂賊)’으로 매도되기도 했음. 그의 문집 『서계집』은 『한국문집총간』에 들어가 있으나 「울릉도」가 실려 있는 『西溪雜錄』은 간행된 문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미분류 자료로 된 필사본임. 이에 사료의 존재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

11) 「울릉도」는 박세당이 다른 사람의 글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음. 박세당은 이 글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확연히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음. 그의 언급으로 추론해보자면, 우산도는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음. 더구나 박세당이 살았던 때는 안용복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며, 박세당은 당시 안용복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의정 남구만의 처남임. 남구만은 사형을 받은 안용복을 유배형으로 감형시키는 데 지대한 공이 있음. 박세당과 남구만이 자주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박세당은 남구만으로부터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갔던 사실과 거기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온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총 16면으로 되어 있는데, 필사본 상태가 좋지 않아 간혹 결자(缺字)가 있음.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를 말함, 필자 주)이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우산도보다, 필자 주) 조금 더 높다.”<sup>12)</sup>

이 같은 내용이 바로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위의 문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글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분명히 다른 섬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두 섬의 거리와 위치 관계가 밝혀져 있어 이로써 우산도는 적어도 울릉도 인근의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울릉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울릉도가 우산도보다 좀 더 높으므로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우산도가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넷째, 위에 언급한 박세당의 기록은 장한상이 우산도에 대해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라고 표현한 것과도 딱 들어맞는다는 점이다. 장한상은 성인봉에서 동남쪽으로 섬 하나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박세당의 기록은 우산도는 매우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곳에서만 보인다고 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는 장한상이 말한 바로 그 ‘희미한 섬’에 해당된다. 울릉도에서 떨어져 있으며 아주 맑은 날 높은 곳에서만 보이는 섬은 현재의 독도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세당이 말하는 우산도와 장한상이 말하는 동남쪽의 섬은 현재의 독도를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 우산도 설명이 일본이 주장하는 죽서도가 아닌 근거로 제공

한편 위의 두 사람이 우산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산도가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竹嶼島)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박세당은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거나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이 표현에 따른다면, 우산도는 적어도 울릉도 옆의 죽도(竹嶼島)가 될 수는 없다. 죽도(竹嶼島)나 관음도 같은 울릉도 주변 도서는 울릉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가장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날씨가 조금 흐리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세당과 장한상의 기록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 ‘보이는 그 섬’이 죽도(竹嶼島)나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



12) 이 부분은 박세당이 승려로부터 들은 것을 뜯기고 난 뒤 자신의 설로 마감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글을 전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글이 당시 우산도에 관한 조선인의 인식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자가 박세당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됨.

나라와 일본이 그 동안 겨뤄오던 논쟁, 즉 1) 우산도가 독도인가 아닌가, 2) 그리고 우산도, 즉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

<표-1>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에 나오는 울릉도·우산도(독도) 관련 내용 비교

	「울릉도」	「울릉도 사적」
번역문	대개 두 섬이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조금 더 높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	蓋二島去此不甚遠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清朗不登最高頂則不可見鬱陵稍峻	西望大關嶺逶迤之狀東望海中有一島杳在辰方而其大未滿蔚島三分之一不過三百餘里

### 「울릉도」·「울릉도 사적」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장한상과 박세당은 모두 숙종 때 이른바 안용복 사건을 경험한 인물이므로 이들이 기록한 문서는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구나 이번에 새로 발굴된 박세당의 기록을 통해 ‘우산도는 독도이며,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날씨가 좋거나 매우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지해왔음을 증명하는 데 유리한 문헌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지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종종 혼란을 보여온 것과는 달리, 문헌에서는 시대를 내려올수록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나 회도(繪圖)에서는 그 정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성된 시대의 공간인식이나 가치관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일본의 지적도 있지만,<sup>13)</sup> 우리는 조선시대의 우산도 관련 기록에서 지도보다는 문헌상의 기록에 더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기록은 15세기의 『세종실록』과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어 그 동안 공백상태 였던 17세기의 사료 부족을 메워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형원이 『여지지』에서 말한 ‘우산’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는 점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회는 우리나라의 ‘우산도=독도’설을 반박하는 것을 주요활동의 하나로 삼아왔다. 더욱이 일본은 ‘우산도=독도’설을 우리나라의 사료 조작 내지 왜곡



13) 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2007.

이라고까지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박세당과 장한상의 기록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박세당과 장한상의 기록처럼 당대에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인물들에 의한 기록은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이 남긴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와 관련된 관찬 기록(정부 기록문서)은 대부분 밝혀지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되고 있으나 개인 기록은 아직 문중이나 도서관에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장서각과 규장각 소장 도서, 그리고 문중 소장의 문집 등을 계속하여 발굴·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